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vol.11

2017년 5월호

www.m-teacher.co.kr
edu.donga.com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즉흥 연기로 쌓인 감정 해소해요

※ 이 사례는 곽수진 인천 서운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 서운중에서는 상담교실인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교우관계의 어려움, 가족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서운중 Wee클래스는 ‘힐링원예치료’ ‘학업중단 예방 집단상담’ ‘소시오드라마’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하는 ‘제5회 Wee 희망대상’에서 기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지요.

서운중 Wee클래스가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 중 특히 ‘소시오드라마’는 효과적인 상담 방법으로 손꼽힙니다. 소시오드라마는 역할극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입장이 돼 문제 상황을 체험하고, 그로 인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즉흥극을 말합니다.

잊고 있던 감정, 역할극 하며 떠올려

서운중은 매년 학생 정서행동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상담 대상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학생들 중 10

명 정도를 한그룹으로 정해 집단 상담을 실시하지요. 집단 상담 중 하나가 바로 소시오드라마입니다. 상담교사가 ‘가족’ ‘친구’ ‘왕따’ ‘공부’ 등 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주제를 던져주면 학생들은 해당 주제에 따라 즉흥적으로 연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 대한 소시오드라마를 할 경우 한 학생은 아버지 역할을 연기하고, 다른 한 학생은 자녀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학생들은 직접 부모 역할을 해봄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부모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교사는 학생의 연기를 토대로 해당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지요.

소시오드라마 상담의 장점은 애써 잊으려고 눌러두었던 감정을 직면하게 하고, 그런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던 한 학생은 중학교에 와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힘이 센 친구들과만 어울리곤 했습니다. 왕따를 당했던 일을 모두 잊고 지내고 있었지만, 소시오드라마를 통해 왕따 당했던 상황을 접하자 울고 말았지요.

자신이 힘이 센 친구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왕따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친구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 배워

상담 대상인 학생들의 성향은 제각각입니다. 외향적인 성향의 학생들은 소시오드라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내향적인 성향의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소시오드라마에 잘 참여하지 않지요. 하지만 소시오드라마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친구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부모와 다투고 있는 상황을 두 명의 학생이 연기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연기에 직접 참여한 학생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연기를 지켜본 학생도 ‘내가 부모라면 자녀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이 걱정되겠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걱정해서 나무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소시오드라마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이 기회를 바탕으로 타인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하는 능력을 점점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인천 북부 지역 수학과 교사연구회 ‘수리수리 술술’ “머리 맞대 최상의 수업자료 만들어요”



함께 모여 수업자료를 개발하는 ‘수리수리 술술’ 연구회 교사들. 인천 부원중 제공

‘수리수리(數理數理) 술술’. 학생들이 수학문제를 술술 잘 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 연구회는 수학과 교사 10여 명이 모여 수학 교과와 관련한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교사연구회다. 인천 북부 지역에 있는 서로 다른 11개 중학교 교사들이 이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다. 2007년부터 매년 다른 주제로 수업에 쓰일 여러 자료들을 제작해오던 이 연구회는 지난해 자유학기 활동 중 주제선택프로그램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재밌고 흥미로운 활동형 수업자료를 개발했다. 지난해 연구책임을 맡았던 최필향 인천 부원중 교사에게 교사연구회 운영 방식과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토의·토론하며 양질의 수학 수업자료 개발

‘수리수리 술술’ 연구회에 소속된 교사들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수업 자료 개발 활동을 진행한다. 연구회에 소속된 교사들은 각기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지만 필요시에는 만나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도 거치는 것. 실제로 이렇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지난해 개발한 수업자료만 해도 총 8편에 달한다.

연구회에 소속된 교사들이 수업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은 이렇다. 우선 각자가 다양한 학회, 연수, 세미나 등에 참가한 뒤 수학 교과 수업에 활용할만한 사례들을 모아 SNS에 공유한다. 이후 교사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만나서 토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2인 1조로 조를 구성해 Δ 정다각형 성질을 이용한 테셀레이션 거울 만들기 Δ 작도로 나만의 하트 문양 만들기 Δ 정다각형 작도를 활용한 다양한 도형 디자인하기 등 다양한 수업 아이디어를 내고 이야기를 나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형태로 모아진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해 실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다시 한번 모임을 가

져 학생 수준에 맞는 ‘활동자료’와 ‘평가 자료’를 제작하는 것. 실제로 제작한 수업자료에는 ‘수업과정안’ ‘탐구활동지’ ‘평가계획’ 등을 꼼꼼히 담은 한편 활동자료를 만들 때는 필요한 재료를 교사들이 공동 구입해 함께 만들어보며 시연 해보는 과정도 거친다.

최 교사는 “혼자서는 개발하기 쉽지 않은 다양한 수업자료를 개발해 공유함으로써 주제선택프로그램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리활동, 축제 부스운영 등에서도 다방면으로 활용한다”면서 “짜임새 있는 양질의 수업자료를 활용했을 때 학생들의 수업참여도와 만족도도 훨씬 높다”고 말했다.

지역 교사들 대상으로 수업자료 활용 워크숍도 진행 ‘수리수리 술술’ 교사연구회의 특징은 소속된 교사들이 개발한 수업자료를 자신들만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 개발한 수업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인천 북부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매년 진행한다. 연구회에 들지 않은 다른 교사들도 새로운 수업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

최 교사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만든 수업자료를 공개하는 워크숍을 열면서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개발된 수업자료로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학생부에 해당 활동 내역을 기재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부 기재 예시문’을 작성해 공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